

Daily Auto Check

2020. 7.14(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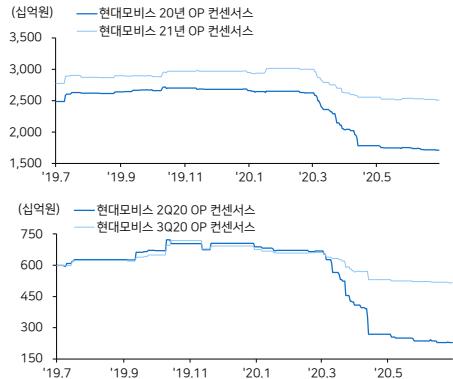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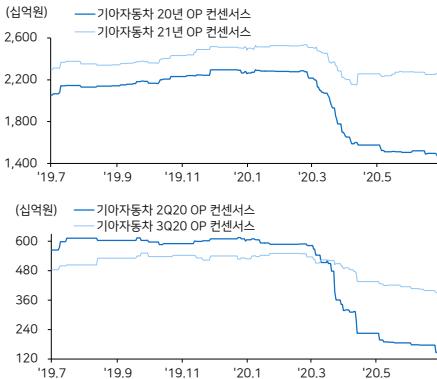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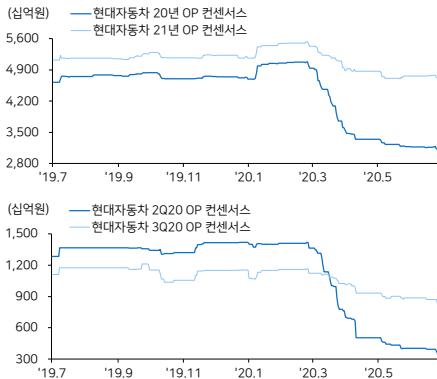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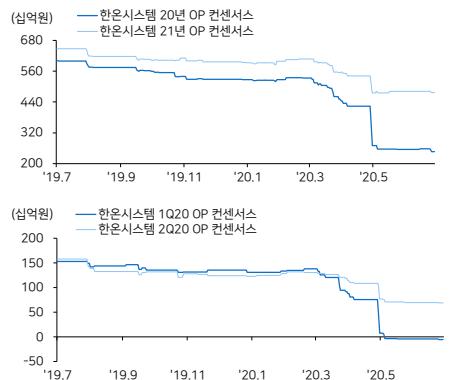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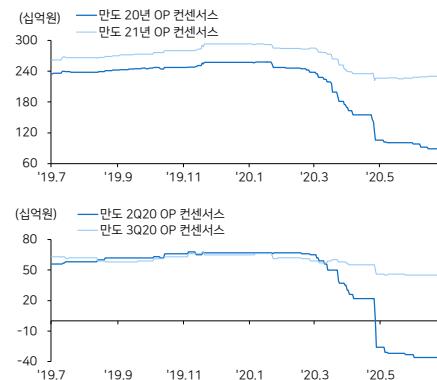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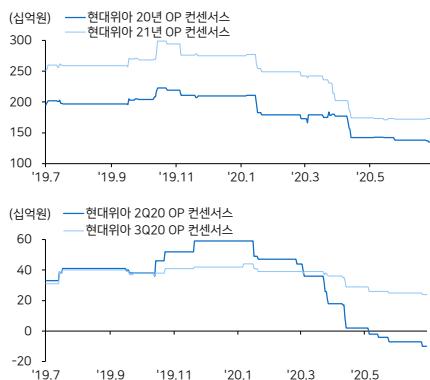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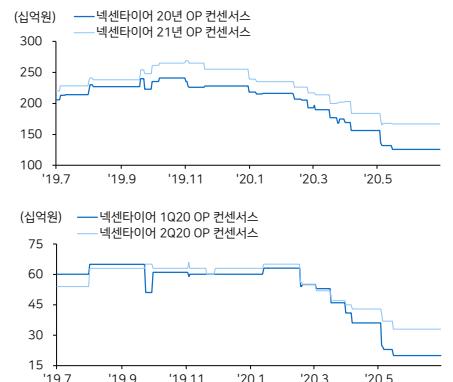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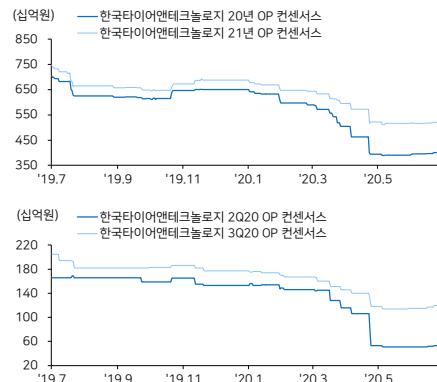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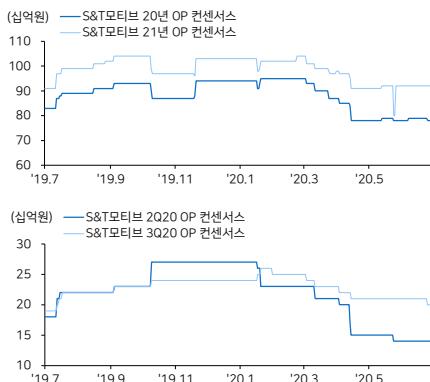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한국판 그린뉴딜, 정의선이 제시한다 (아이뉴스24)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기업 의견을 전달. 13일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공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힘.
<https://bit.ly/38TTeeP>

"우주선 실내 구현"…기아차, 4세대 카니발 내장 공개 (한국경제TV)

기아차는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기업 의견을 전달. 13일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공개하는 국민보고대회를 14일 개최한다고 밝힘.
<https://bit.ly/2Cs5CtY>

기아차, 러시아 판매 '셀토스' 5천여대 리콜… "핸들조향축 결함" (연합뉴스)

기아차는 러시아 법인이 현지에서 판매된 소형 SUV 셀토스 5천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힘. 리콜 이유는 '핸들조향장치'(MSCL)가 장착된 차량의 핸들 조향축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
<https://bit.ly/20lhjTX>

한국·금호·넥센 타이어 3사, 판매량 회복세 (뉴스핌)

코로나19 여파로 고전하는 전 세계 완성차 공장이 차츰 가동률을 높여가고 있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국내 타이어 3사의 판매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https://bit.ly/2OmpQhk>

제네시스, 전에없던 '3.0터보 가솔린'으로 中 공략 (서울경제)

제네시스는 3.0ℓ 터보 차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중국형 제네시스'로 현지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임. 중국 공업정보화부 (TENAA)는 현대차가 신청한 제네시스 양비에 대해 인증하고 공개.
<https://bit.ly/3eqqyVp>

현대차 '상생' vs. 한국GM·르노삼성 '강성' (파이낸셜뉴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노사는 올해도 임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 반면, 현대차는 올해 임단협 시작 전이지만 앞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노조의 달라진 태도로 임금 동결 가능성성이 높아짐.
<https://bit.ly/2WeUwVf>

넥센타이어, AI로 '현대차' 하부소음 잡는다 (머니S)

넥센타이어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타이어 소음을 한층 저감시킬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을 구축. 넥센타이어는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 등에 납품하는 중.
<https://bit.ly/3fm2YKJ>

일본 불매운동…한국토요타 영업이익 반 토막 (연합뉴스)

일본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국내에서 토요타 매출이 33% 감소. 13일 한국토요타자동차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9회계연도 (2019년 4월~2020년 3월) 매출은 7천980억원으로 전년(1조1천976억원)보다 33.4% 감소.
<https://bit.ly/2AWlOn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غير 신의 성질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